전문도서관 정보봉사의 현단계

김 용 근*

〈목 차〉

Ⅰ. 서 론
Ⅱ. 전문도서관의 조직
1. 조직상의 위치
2. 업무영역
3. 인력
Ⅲ. 자료
1. 자료수집 방법
2. 수집자료의 종류
3. 자료의 분석
4. 자료공동이용
Ⅳ. 정보봉사
1. 인쇄자료를 이용한 정보봉사
2.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정보봉사
3. 외부이용자에 대한 정보봉사
Ⅴ. 결 론
Abstract

Ⅰ. 서 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전문도서관이란 그 설립기관, 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필요에 의해 도서관을 설립하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도서관은 그것이 소속된 모기관의 성격에 따라 설립목적과 조직유형, 봉사방식도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조직의 분화과정에서 다양한 조직체가 생겨나고 각 조직은 효율적인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업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도서관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업무수행에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전문도서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발달에 힘입어 여러 산업체에 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을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도 각종 연구소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자리를 잡게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도서관통계에 따르면 전문도서관의 수는 418개관, 직원수 1,736명, 사서수 858명, 입수 국내 잡지는 41,197종, 외국 잡지는 60,892종이라고 조사되고 있다.[1] 통계수치로는 이들 도서관 구성요소들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특히 기업체에 소속된 전문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산업분야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산업체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부속기관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도서관의 설치수 만큼 그 봉사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직원의 수와 자질, 예산, 자료수집량 등에 있어서도 만족할 수준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도서관 중에서도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 소재의 정부출연연구소 도서관에서도 수집하는 자료의 절대량의 부족, 회색자료 수집의 어려움, 자료관리의 비효율성, 국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입수의 어려움 등 자료수집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예산의 부족, 인력 부족으로 충실한 정보봉사가 어렵다는 도서관 관리자의 보고가 있다.[2]

도서관계의 전문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다. 국가 도서관정책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여러 갈래의 도서관진흥론은 '공공도서관 살리기'쪽으로 기울고 있어 일반 시민은 물론 도서관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에 관련된 연구[3]와 도서관학 분야 전문잡지의 논제의 주류도 공공도

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2) 조현양, "연구단지 전문도서관의 기술정보 활동",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 153-175

3)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에 관련된 최근 몇 편의 연구논문을 소개한다.
- 한상완, 서혜란, 곽철완, "21세기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및 모델개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집, 4집(1997. 4.), pp. 7-36.

서관에 관한 논의가 많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도서관학계의 꾸준한 연구주제로 되고 있다. 대학도서관 기준에 관련된 많은 연구와 최근에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시에서 대학도서관 관련사항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마련하는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의 주제로 삼은 적도 있다.[4]

전문도서관은 법적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지 않고 도서관이 소속된 모기관의 필요 때문에 조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외부의 이용자에게는 제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일반인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요인일 것이다. 또한 우리의 도서관계의 현실이 전문도서관의 정보봉사 수준에까지 관심을 두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도서관계의 전문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주제로 토의된 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네 차례에 걸쳐 전문도서관이 토론주제로 되고 있다.[5]

· 손정표, 박인웅, 한두완,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1)

· 조석준 등, "도서관 발전정책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4) 김진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제와 도서관평가 문제", **도서관문화** 36권 3호 (1995. 5 · 6), pp. 21－25. 김정현, "대학종합평가 기준항목 중 도서관관련 항목에 대하여", **도서관문화** 36권 3호 (1995. 5 · 6), pp. 26－32. 백항기, "대학도서관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서관문화** 36권 3호 (1995. 5 · 6), pp. 33－47.

5)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전문도서관이 주제로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정덕영, "전문 · 특수도서관의 제문제", **도서관문화** 29권 1호 (1988. 1 · 2), pp. 4－9.

· 최호남, "새도서관법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제문제", **도서관문화** 31권 1호 (1990. 1 · 2), pp. 21－36

· 김상열, "전문 · 특수도서관의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관문화** 32권 6호 (1991. 11 · 12) pp. 2－5

· 김재수, "전문정보센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조현양, "연구단지 전문도서관의 기술정보 활동", 최호남, "연구단지 전문도서관의 Digital Library 추진사례－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 141－202.

전문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계 전체에서는 크게 관심의 대상이 아닐지 모르나 유사한 성격의 전문도서관 사이에는 협력조직을 구성하여 비교적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에 소재하는 정부출연연구소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등이 협력활동에서 두드러진 조직들이다.[6] 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는 그 설립 역사가 오래된 점도 있지만 설립목적, 운영방식의 유사성, 도서관의 소재지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도서관 환경이 다른 지역이나 관종의 도서관보다 좋다는 것 등으로 인하여 공동활동이 많다. 단행본 자료에 대한 종합목록작성, 연구소의 자체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데이타베이스화로 공동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 등이 그것이다. 1996년에는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11건의 주제발표가 있었다.[7]

전문도서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에 소속된 도서관과 그 밖의 소수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문도서관의 사정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어떤 수준의 정보봉사를 하며 조직, 규모 등이 어떤지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다.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전문도서관의 활동과 조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8]

전문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지식생산에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한 나라의 도서관봉사에 대한 원리가 주로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개발된다고 보면 전문도서관은 그것을 개체도서관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실행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

6) 전문도서관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김창근,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3)

7)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연구단지정보관리총람, (서울 :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1992)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Digital Library와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향상", 1996년 과학기술 정보관리협의회 연례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pp. 1-14.

8)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으로 많이 생산되어 있다.

도서관 발전논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전문도서관은 도서관봉사에 있어서 어떤 부문은 가장 앞서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교수들이 생산하는 지적 생산과 전문도서관의 이용자인 연구원들의 연구결과가 활용되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의 지식창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는 것도 결국 도서관인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산업기술정보원에서 계간으로 출판하고 있는 「정보관리연구」매호에 고정으로 수록하여 소개하고 있는 「국내정보기관시리즈」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봉사의 현단계를 살펴 보는 것이다.[9] 전문도서관의 조직과 인력구조, 정보봉사의 바탕이 되는 자료의 종류, 정보봉사의 수준 등을 알아 보는 것이다. 이 논의의 결과는 전문도서관의 봉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약하고 보충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1988년의 「정보관리연구」19권 2호에 수록된「쌍용경제연구소 정보관리시스템」에서부터 8년에 걸쳐 수록된 도서관의 현황이므로 과거에 소개된 도서관의 사정은 지금에 와서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입수자료의 종수와 정보서비스의 방식에서도 물론 많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향을 설명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Ⅱ. 전문도서관의 조직

1. 조직상의 위치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처럼 단위기관으로 독립된 조직

9) 1988년부터 1996년까지 28개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이다. 전문도서관의 책임자 또는 담당업무 사서가 그들이 소속된 전문도서관을 개관하여 소개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식에 따라 기술된 내용이 아니다.

체가 아닌 수가 많다. 모기관 안에서 어디에 소속되는지에 따라 그 활동범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문도서관은 조직체내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설치되지 않는 한 하나의 도서관이 조직구성원의 전체를 봉사대상자로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부서이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책임을 가진 다른 업무부서와 관리조직상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으나, 전문도서관의 책임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최고관리자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산업체에 소속된 전문도서관은 그 설치목적, 산업체 업무에 참여하는 정도 등에 따라 소속부서가 달라진다. 산업체내의 다른 부서와는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부서로서 최고관리자에 직속하는 조직, 특정부문의 봉사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그 부서에 소속된 조직, 가령 연구개발부서에 소속되게 하는 조직, 행정관리부서에 소속하는 조직 등이 있다.[10]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지를 알아보자.

> 상당수의 전문도서관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의 직속하에 있지 않고, 행정부서의 과나 실에 속해 있어서 그 전문성과 독자성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영자나 기관에까지 전달되는 기회가 줄게되어 그들의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구태의연한 인식을 타파하고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예산 또는 규모축소가 따르게 마련인데 도서관이 그 대상의 우선 순위에 오르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하의 상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특히 기업체 도서관의 경우 조직축소나 폐쇄, 예산삭감 등이 여타 도서관보다 심하기 때문에 사서직원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열의와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11]

도서관은 봉사대상자들이 가장 편리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체 안에서 도서

10) 김용근, "산업체 정보관리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18권 4호 (1985. 12), pp. 1-21.

11) 장호남, "새도서관법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제문제, 도서관문화 31권1호 (1990. 12), p. 34.

관은 독립부서로 기능할 수 있을 때에 가장 공평한 봉사를 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경영자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형식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도서관정책을 항상 얼마나 많은 도서관을 만드느냐에 우선을 두는 것과 같이 조직체의 경영자들이 인식하는 전문도서관도 그 존재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전문도서관 실무자가 말하는 기업체 자료실의 사정을 보자.

> 전문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진의 도서관에 대한 무지로 인해 도서관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자료실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이고 앞서 나아가야 할 전문도서관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최신 정보와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는 무시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투자에만 급급하다 보니 기초가 단단한 제대로 된 기술개발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12]

생산기업체에 소속된 소규모의 전문도서관과는 달리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도서관이나 '국내정보기관시리즈'에서 소개된 전문도서관들은 비교적 도서관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조직체 안에서는 이해되고 있는 상태이다. 규모가 작은 소수의 전문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연구소장에게 직접 도서관 운영현황을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최고관리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체제의 도서관은 행정부서에 소속되거나 연구부서에 소속되고 있다.

2. 업무영역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의 운영조직을 중심으로 발전모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도서관은 적어도 네 가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12) 전충곤, "전문도서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기업체 자료실을 중심으로, 전국사서협회소식 4권 3호 (1994, 4), p. 17.

있다.[13] 각 기능들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가지면서 기능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관리실에서는 문헌정보의 입수와 관리, 정보제공 기능을 가지며 정보조사와 분석업무는 정보분석실에서 수행하며 기술동향, 산업동향 등의 자료를 생산한다. 수집된 문헌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 종합하여 입수된 원문헌에서 밝히고 있지 않는 어떤 사실을 체계적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정보유통시스템의 운영은 정보유통실에서 담당하며 정보제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정보의 분석결과 얻어지는 기술동향분석지나 기술데이터의 출판과 배포는 정보보급실에서 맡도록 하는 조직형태가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조직의 형태는 전문도서관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전문도서관이 모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능별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규모가 큰 전문도서관일수록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게 일반적이다.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는 소속 회원기관의 업무내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정보관리, 정보분석, 정보개발 및 정보유통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14] 정보관리업무는 전통적인 도서관업무를 말하며 정보조사분석 업무는 기술동향 분석, 시장분석, 요구정보 수요조사를, 정보개발 업무는 데이타베이스 개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관련기술 및 표준화 연구, 정보유통 업무는 대외 서비스, 전문정보망 유지, 출판, 보급 및 기관지 발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정보개발과 정보유통 업무는 전문도서관의 주된 기능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정보분석 업무는 소수의 도서관에서만 주요 기능으로 포함시키고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분석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3) 이진영, 기술정보실 발전모형 연구 (1987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과제), pp. 22-24.

14)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앞의 편람, pp. 235-238

이들 전문도서관들은 개별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연구결과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는 업무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 업무를 위하여 도서관내에 어떤 단위조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정보실'의 업무분장에서는 단위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는 많다. 정보기술의 활용이 다른 유형의 전문도서관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분석 업무는 연구소 연구부서에 소속된 동향분석실, 또는 기술동향실에게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분석결과는 연구소내에서만 유통되는 정보로 그치는 수가 많다. 전문도서관에서 정보분석 업무가 수행된다면 그 결과는 관련된 외부의 기관이나 산업체에 배포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정부출연연구소 전문도서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분석실의 기능을 보면 특정분야의 정책, 시장, 기술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중소기업 전문정보 조사분석, 통계조사 활용분석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정보분석의 결과는 기술동향, 산업동향 등의 이름으로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출판물을 생산, 배포하며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연구소 안팎의 이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5]

3. 인력

생산기업체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도서관은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직원의 수와 자격기준은 봉사대상자인 소속원의 인원과 조직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의 사정은 어떤지를 몇 가지 사례에서 알아 보자.

전문도서관이 공중을 주된 봉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및 자격요건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문도서관의 가장 근본적인

15) 이윤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정보센터", 정보관리연구 27권3호 (1996. 9), pp. 75-91.

요건마저도 제도안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단 한명의 사서직원도 없는 도서관이 15%나 되는 현실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16]

전문도서관 중에서 적정규모의 사서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도서관도 20%정도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서직원이 한 사람도 없이 행정직이나 사무직 심지어는 일용직 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는 실정이다.[17]

기업체는 자료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자료의 수집과 이용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지원을 할 수 있는 사서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부족하다.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사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량은 많다. 아무리 소규모의 자료실이라도 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절차는 모두 거쳐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료실 업무가 아닌 행정적인 실무까지도 사서가 맡아야 되는 수가 많다. 이렇게 복합적인 일의 더미에서 어떤 전문적인 정보봉사가 가능할 것인가. 기업체 자료실의 사서로부터 현장의 사정을 알아본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체 자료실의 경우 1~3명의 사서들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사서가 1명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3명 이상이 있는 곳은 아주 드문 실정이다. 전문적인 봉사를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관이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 요인이 여기에 있다. 더우기 사서들 또한 자료실의 수서, 정리, 대출, 송금업무까지는 물론 자료실업무 외적인 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체 자료실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분담하여 파트별로 전문화시켜 그 이름처럼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업무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인 얘기지만 수준 높은 전문사서직의 대폭적인 충원이 있어야 한다.[18]

또한 도서관업무에 컴퓨터와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16) 장호남, 앞의 글, p. 34.
17) 위의 글, p. 34.
18) 전충곤, 앞의 글, p. 20.

이 정보기술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므로 도서관직원들은 이 변화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전문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문도서관 중에서 그 환경이 비교적 우수한 도서관의 사정은 어떤지를 보자.

> 사서의 역할이 과거 자료정리, 열람에서 데이타베이스관련 정보매체 이용이나 데이타베이스 제작 등 고부가가치 업무수행까지 요구하는 사회에서 정보관리 직원들의 업무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서비스 대상 이용자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 거의 모든 기관이 서비스 대상 이용자수에 비해 정보관리 직원수가 감소 됨으로서 정보관리 직원 1인당 서비스 대상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9]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에서는 회원기관의 도서관 직원의 적정인원수를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의 전문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바 있다. 회원기관의 정보관리 담당부서의 인력은 봉사대상자의 수, 자료의 성격과 규모, 정보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서관기준에 의하면 전문도서관마다 2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11명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전문도서관의 업무가 더욱 전문적이고 세분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20] 인문사회과학분야 전문도서관에서도 인력부족에 대한 사정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의 생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그것들을 관리하고 이용할 사람에 관련된 요소는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이다. 수준 높은 정보봉사가 어렵다는 증거이다.

전문도서관은 충분한 사서직원이 확보되는 것과 다양한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도 필요하다. 주제분야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부여된 업무에 따라서는 번역 전문가, 편집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 다시 연구단지전문도서관의 사정을 알아보자.

---

19) 조현양, 앞의 글, p. 156.

20)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앞의 편람, pp. 242-243.

> 도서관의 인원구성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그들을 도와주는 기능직들로 이루어져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중 전문분야 정보를 심층조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주제전문사서가 부족하다. 또한 타 부서에 비해 위상이 낮은 관계로 은퇴연구원, 고참연구원들이 유입되어 도서관이 마치 무능력자의 도피장소로 하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비전공자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이들을 훈련시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정보분석 및 동향파악 등에 투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21]

전문도서관은 봉사 대상자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입수하려는 자료는 단행본에 수록되어 있는 정도의 일반화된 지식수준이 아니고 아직 구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상과 사실을 밝혀낼 목적으로 사용될 아주 전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봉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도서관에서는 당연히 주제전문가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색인, 초록화는 물론 서지작성, 소장 및 비소장 데이타베이스의 검색 등 어떤 업무에도 주제배경이 없이는 전문도서관의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연구경험이 많은 연구자를 전문도서관의 정보분석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될것이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도서관의 전문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캐나다의 경험에서 보자. 캐나다의 과학기술정보협의회의 기술정보서비스부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공학 및 경영학 분야의 대학원 졸업자로서 생산기업체에 5~30년의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한다. 캐나다는 대학원 졸업 후 2년간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하면 기술사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기술정보서비스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기술사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외에도 어학(영어 및 불어), 경영일반, 서지학, 도서관학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건강, 인간성,

21) 조현양, 앞의 글, p. 160.

화술 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22]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입수 방법, 정보처리 도구, 데이타베이스 이용방법 등을 변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나 그러한 매체에 수록되는 정보 그 자체는 항상 정보나 지식일 뿐이다. 정보봉사는 언제나 적합한 정보를 적시를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사서의 전문성은 매체와 전달방식을 이해하는 능력과 주제내용을 일정 수준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의 구비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도서관의 관리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도서관 구성원의 역할론에서도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식의 소유자들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정보센터 구성원의 중심인 사서는 정보의 속성에 대한 이해, 정보처리기기 운영, 정보의 축적 및 가공, 주제지식, 데이타베이스, 네트워크 등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운 자질을 더욱 많이 요구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정보매니저라는 새로운 전문직종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컴퓨터 과학자와 사서전문가, 출판전문가 및 데이타 전문가의 기능을 골고루 갖춘 수퍼맨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23]

전문도서관에서의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소의 연구원과 사서에게 질의하여 분석,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주제 분야와 일치하는 학문적인 주제배경을 가진 주제전문사서는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연구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어떤 이론과 정확한 통계를 수반한 훌륭한 연구결과는 주제전문사서와 연구자사이에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와 자료의 세밀한 분석과 지원이 합쳐질 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도서관에서의 주제전문사서의 활동은 사서에 대한 인식과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

22) 김은식, "캐나다 과학기술정보협의회의 활동", 정보관리연구 9권1호 (1976,12), pp. 1-12.
23) 김재수, "전문정보센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한 국도서관협회, 1995), p. 148.

칠 것이다.[24]

Ⅲ. 자 료

전문도서관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여러 종류와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처리, 제공하는 도서관이다. 전문도서관의 장서나 그 주제범위는 그것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활동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장서구성을 위한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 주제범위를 결정하기는 쉬우나 새로운 지식, 사실 또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연구자들의 자료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소장자료로 충족시키며 부족한 자료를 협동체제나 외부의 기관을 통하여 입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도서관은 서로 공통점이 약하므로 다른 도서관의 경험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나 봉사방법의 개선은 전문도서관협의체를 통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도서관이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며 도서관 내부와 외부의 이용자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어떤 종류를 수집하며, 자료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실한 자료제공

24) 정진식, "전문도서관과 주제전문사서의 관계성 고찰-연구원 도서실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18권1호 (1985. 3),pp. 1-55.
주제전문사서에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김중한, "도서관 관계 전문직과 관계학문의 재규정", 도서관학 제1집(1970), pp. 133-146.
· 구자영,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도서관학 제6집(1979), pp. 37-52.
· 한상완,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업무에 있어서 주제전문가의 기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6)
· 한상완, "대학도서관의 정보활동과 주제전문가", 도서관 34권2호 (1979), pp. 20-27.
· 한상완,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기능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을 할 의도로 활용되는 자료공동 이용체제의 현황은 어떤지 등도 고찰해 본다.

1. 자료수집 방법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서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나 양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데이타베이스 형태의 서지정보를 통하여 필요한 문헌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문헌의 입수에 있어서는 신속성이 조금 나아진 사정 외에는 아직도 개별 도서관의 활동에 맡겨지고 있다. 학술잡지를 비롯한 레포트, 회의자료 등의 일차자료는 각 도서관이 최대로 수집하는 방안과 공동체제를 통하여 자원공유를 위한 제도의 정착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문헌의 수집은 자료수집비의 확보가 문제이나 비공개자료 또는 회색자료의 수집은 정보생산처와 입수방법을 따로 알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전문도서관들은 자료관리규정이나 운영보고서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연구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기도 하며 외국출장자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기도 한다. 자료선정에 반영시킬 이용자 요구조사가 많은 전문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매일의 업무처리가 과중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5]

전문도서관은 단행본보다 연속간행물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구독잡지를 취소하거나 새로 학술잡지를 구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서개발 및 자료선정규정의 활용과 사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25) 김홍렬,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의 산업체 정보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26권 2호 (1995,6), pp. 88-110.

이다. 그러나 구독자료의 중지나 학술잡지의 증종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이용자와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항상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보요구 조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기술보고서, 학술회의자료, 특허문헌, 규격자료 등의 수집에 있어서는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과 같이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종류의 자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입수하기로 결정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실물자료를 도서관으로 들여오는 절차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전문사서의 정확한 판단력은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이 정보수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자료의 수집보다 비공개자료 또는 회색자료의 망라적 수집에 관련된 방안의 마련이라고 말한다. 전문도서관 관리자가 지적하고 있는 회색자료 수집에서의 문제를 알아본다.

> 해외 과학기술정보 중 비공개정보 또는 일명 회색자료의 수집은 아주 초보적인 차원에서 외무부의 해외공관 주재원이 수집하는 정도이거나 기껏해야 연구소별 해외 사무소를 통하여 입수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해외공관의 업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이다. 게다가 과학기술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세미나 및 회의자료, 부정기간행물, 주재국 정부 및 기관의 보고서 등의 수집에는 어려움이 따른다.[26]

회색자료의 수집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확보는 망라적 자료수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상업적 판매경로를 통하여 유통되는 자료의 유용성을 여러 방식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는 업무는 더 중요하다. 우선 개별도서관에서의 원문헌의 충실한 확보가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겪는 정보부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자료공유체제는 그 다음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어야 할 일이다.

---

26) 조현양, 앞의 글, p. 157, 김재수, 앞의 글, pp. 149-150. 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2. 수집자료의 종류

전문도서관은 공통적으로 어떤 주제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한 시기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입수가 늦어져 연구가 완료된 시점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면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도 장차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보봉사도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에 응답하려면 우선 많은 양의 자료수집으로 대비하는 방법과 자료분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새로운 자료의 생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정보량을 계속적으로 늘이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현행 전문도서관의 자료수집방식을 개선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료확보는 가능해질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의 자료에는 단행본, 학술잡지, 기술보고서, 학술회의자료, 특허 및 규격자료 등이 중심이 된다.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은 수정되는 속도가 빠르므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는 최근 간행된 것이 될 것이다. 인문사회과학분야 전문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도 과학기술분야의 그것과 유사하다. 기술내용을 담고 있는 특허나 규격문헌 등은 필요하지 않다. 이 분야의 지식은 과학기술분야 보다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문헌의 출판년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한국도서관통계에서는 전문도서관의 자료조사에서 자료의 종류를 단행본(장서수), 비도서자료, 국내외 잡지종수로만 구분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장서구성에는 다른 유형의 도서관처럼 단행본 중심이 아니고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학술회의록, 특허자료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을 얼마나 소장 또는 구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매체별 소장현황을 살펴본

다.[27] 회원도서관의 평균 단행본 소장량은 약 46,000권이며 년간 증가율이 5-10%정도라고 한다. 이 소장량은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자료량의 절반 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속간행물은 회원기관당 평균 363종으로 년간 증가율은 5%이하이며, 전문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구독기준으로 보면 10%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의 많은 부분이 연속간행물을 통하여 발표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문도서관의 학술잡지 수집방식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전문도서관이 원문입수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문헌복사신청한 실적을 보면 1995년 기준으로 년간 최고 6,200건까지 의뢰하고 있다.[28] 학술잡지와 다른 자료와의 구입비 배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독 학술지에 대한 재평가와 외부기관에 문헌복사의뢰로 입수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데이타베이스의 구입과 통신망을 이용한 국내외 데이타베이스의 이용은 모든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연구보고서와 지도자료의 수집, 각 나라의 교과서 수집도 전문도서관의 연구분야에 따라서는 이루어지고 외국출장보고서, 사내자료의 수집도 전문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매체가 여러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료의 분석

일반적으로 정보서비스기관을 전문도서관, 도큐멘테이션센터, 레퍼럴센터, 클리어링하우스, 정보센터, 정보분석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정보분석센터가 주로 기술현황보고서, 리뷰지 등을 생산하는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문도서관은 이들 기능들을 모두 약간씩 수행하

27)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앞의 편람, pp. 245-255.
28) 조현양, 앞의 글, p. 167., 부록의 문헌복사제공 서비스 실적을 참조.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기능을 더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개별 전문도서관에 따라 다르다.

산업분야에 새로운 기술개발 결과를 전파시키는 전문연구소의 부속 도서관으로서는 관련 산업분야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체에 제공하는 업무는 자연스럽게 수행될 수 있는 일이다. 기술동향분석, 시장동향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이 주된 정보분석 과제들이다. 정보분석업무는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주제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전문도서관의 인적구성으로는 정보분석이 사실 어렵다. 전문정보 주제조사는 여러 전문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보검색업무도 실제로는 주제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좋으나 주제배경이 없드라도 오랜 경험으로 가능한 업무이기도 하다.

정보분석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정보센터 정보분석실의 경우를 본다.[29] 전자, 통신, 컴퓨터 및 반도체 분야의 외국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주간기술동향'을 생산하고 있다. 외국의 전자통신분야 기술변화와 신제품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각 나라의 통신기술정책과 기술동향을 분석한 '전자통신동향분석' 등을 만든다. 이들 자료는 관련 산업체와 기관에도 배포한다. 한국화학연구소는 정밀화학분야의 기술동향, 제품수급동향, 기업체 동향 등을 분석하고 산업체에 제공한다.[30] 그 밖의 소수 전문도서관에서 아주 약하게 정보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자료공동이용

전문도서관은 장서구성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중심을 두어야 하므로 특정 주제분야에 한정되고 있다. 거기에다 각 전문도서관은 소속된 모기관의 사회적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도서관 운영과 봉사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전문도서관 사이의 협력을 위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29) 이윤철, 앞의 글, p. 87.
30) 김홍렬, 앞의 글, p. 95

어려운 일이지만, 공통적인 요소를 가진 전문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자료공동이용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의 사정을 살펴 보자.

> 197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비롯한 6개 연구기관이 모여 자료의 분담수집과 공동활용을 목표로 한 서울연구개발단지 도서관실무자협회를 구성하였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31개의 회원기관을 보유한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기구는 20년 가까운 활동기간 동안 도서관 협력활동과 자동화 분야에서 국내 도서관계를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체계적 정보협력활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31]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는 1972년 서양서 12,308권에 대한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을 발간하고 1985년에는 상호대차 및 복사서비스에 대한 협의를 하고 1991년에는 60,316종에 대한 종합목록을 구축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사업의 일환으로 12개 전문도서관이 참여하여 전문데이타베이스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32] 그러나 이러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공동이용에 있어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단지내 기관들끼리의 상호대차조차 이용자의 직접 방문에 의한 서비스(열람, 복사, 대출)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용상의 불편때문에 연구원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33]는 전문도서관 관리자의 관찰에서도 알 수 있다.

자료공동이용의 전제가 되는 종합목록의 작성은 산업기술정보원이 제작하는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외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개발정보센터 등에서 여러 형태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료이거나 외국의 자료이지만 국내 어떤 도서관이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공동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31)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앞의 편람, p. 1.

32) 오건택, "전문도서관 정보서비스 어디까지 왔는가", 1996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연례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pp. 1-14.

33) 조현양, 앞의 글, p. 158.

과학기술분야 외국학술잡지의 국내 소장현황과 상호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한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간의 자료공동이용의 현단계를 알아본다.[34] 우리나라에서 입수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의 종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2년 현재 국내 229개 도서관이 수집하는 외국학술잡지는 12,481종이나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는 22,000종, 캐나다 과학기술정보연구소는 3만종 등으로 하나의 기관이 수집하는 종수보다 적다. 여기에다 기관마다 중복수집하고 있는 종수가 많다는 것이다. 53.1%인 6,632종은 적어도 1개 도서관 이상에서 중복수집하고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이 해외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서지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의 원문을 수록한 학술잡지를 입수하려고 할 때 국내에서의 외국자료 입수율은 30%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의 정보관리기관에 원문복사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도서관의 협의회 중에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1976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 '한국의학도서관'을 간행하며 자료상호이용을 목적으로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을 간행하고 있다. 1991년판에는 110개 회원기관의 입수자료가 수록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에도 33개 사회과학분야 전문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을 간행하고 있다.

대학도서관내에 산업체를 위한 산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대학도서관이나 산업체 전문도서관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외국의 사례는 도서관간의 협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두 도서관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예산편성, 자료수집비의 배정, 자료의 소장위치 등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있으나 합의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이다.[35]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캠퍼스내에 산업체의 연구소가 설치되고 있다. 인력과 실험시설의 공동이용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대학도서관과 산업체 자료실간의

34) 김석영, "외국 학술잡지의 국내 소장현황과 문제점", 정보관리연구 24권3호(1993. 9), pp. 57-72.

35) Lisa G. Dunn, Deborah S. Grealy, "The Industry Information Center Within an Academic Library : A Case Study", *Special Libraries*, vol. 87, No. 3(Summer, 1996), pp. 169-180.

자료공동이용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정보봉사

전문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봉사를 내부 이용자를 위한 봉사방식과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본다. 인쇄자료를 이용한 정보봉사와 데이타베이스를 통한 정보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본다.

1. 인쇄자료를 이용한 정보봉사

전문도서관이 수집하는 국내외의 인쇄자료와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실시하는 정보봉사의 종류와 그 형식을 알아 본다. 모든 전문도서관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새로 입수되는 자료에 대하여 신착자료속보를 만들어 연구원에게 알리고 있다. 소장된 자료에 대한 조사는 도서관이 구축해 둔 소장자료 데이타베이스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최근 입수된 자료는 이 방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최신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수된 신착자료를 여러방식으로 전달하는 업무는 중요하다. 최근 입수된 학술잡지의 목차속보서비스도 거의 모든 전문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입수잡지에 대한 목차서비스는 최근 발행된 구독 학술지의 목차를 연구자들에게 알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봉사방식이다. 개별 전문도서관에서의 구독 학술잡지 목차서비스는 필요한 정보의 소재가 확인되면 어떤 복잡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즉시 원문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정보입수 과정에서 선호하는 행태이다.

최근에는 여러 형태의 데이타베이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의 서지사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원거리에 소재하는 데이타베이스를 검색하거나 도서관에서 입수한 CD-ROM형태의 데이타베이스를 통하여 서지정보의 입수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원문헌의 입수를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국내 연구기관 도서관들이 수집하는 외국학술지의 종수는 빈약하다. 또 각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자원공유체제도 부실하여 연구자들이 원문입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보분석업무는 규모가 큰 소수의 전문도서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기술동향, 연구개발동향, 연구정보리뷰, 산업동향, 국내외 학술잡지의 서지작성 등 다양한 정보분석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전문도서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정보분석 결과를 전문연구소 밖의 정보이용자에게도 제공하는 수가 많다. 책자형 자료의 생산이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정보봉사

전문도서관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타베이스의 종류와 온라인 방식으로 외부에 소재하는 데이타베이스의 이용상태, 자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데이타베이스의 유형을 알아 본다.[36]

전문도서관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타베이스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정보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서지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므로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수집량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20종의 데이타베이스를 수집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분야 전문도서관에서의 수집 종수는 비교적 적다. 데이타베이스의 유형으로는 서지

36)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연구단지정보관리총람' pp. 256-262., 조현양, 앞의 글, pp. 170-174., '정보관리연구'에 수록된 국내정보기관시리즈 각 편.

데이타베이스가 많고 수치 데이타베이스도 약간 수집되고 있다. 자료선정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Book in Print Plus, Ulrich's Plus와 자료조직에 이용되는 CAT CD450, Bibliofile등의 입수가 많다.

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데이타베이스는 도서관이 수집해 두고 이용하는 데이타베이스 보다는 이용빈도가 걱기 때문일 것이다. CD-ROM형태의 데이타베이스가 생산되기 이전에는 원거리에 소재하는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접근하였다. 국내 통신망인 하이텔과 천리안의 이용과 Kiniti-IR, Dialog의 이용은 모든 전문도서관이 활용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이 자체 제작하고 있는 데이타베이스는 소장자료에 대한 것과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므로 20종의 데이타베이스를 제작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는 각각 10종 이상을 제작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수송기계, 기계재료 분야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에너지 전문가 데이타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3. 외부이용자에 대한 정보봉사

전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이용자는 어떤 주제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산업분야, 금융 및 재정계 또는 교육분야 연구자들이다.

전문도서관이 외부이용자를 위하여 정보봉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영역중에 포함시켜 규정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37] 외부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37)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정보센터는 '기본 목표와 역할 및 기능'에서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산학연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 정책, 동향정보를 전파, 보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윤철, 앞의 글, p. 77.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산업분야에 필요한 실제를 알아보자. 산업분야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일어나는 문제해결에 적합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더구나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정에는 여러 종류의 산업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보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와 인력이 부족하다. 과학기술분야와 경제분야 전문도서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정보부족으로 일어나는 산업체의 경영활동의 어려운 점들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전문도서관이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전문연구소의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도서관의 사서와 관리자가 관찰하고 있는 외부 이용자에 대한 정보봉사의 현단계를 알아보자.

>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도서관은 산업체에 대한 정보지원을 할 의무도 없고 정보지원을 한다고 해도 업무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전문도서관의 업무내용에 외부기관에 대한 정보지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도서관의 정보지원 업무중에서 산업체에 대한 기술정보지원을 위해 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38]

> 기술정보의 출판과 배포에 관해서는 신착자료속보나 기술동향지, 분석지,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대부분의 전문도서관이 출판·배포하고 있으나 배포기관은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대부분 관련기관이나 도서관 등의 정보제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다.[39]

> 대부분의 출연연구소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은 소내 근무 연구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관련분야의 산학연의 종사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외부인들의 자료이용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몇 개 소수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방문열람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나마 위 기관 중에는 특정자료에 한해서만 복사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기관도 있어 외부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있다.[40]

---

38) 김홍렬, 앞의 글, p. 99.
39) 김홍렬, 앞의 글, p. 96.
40) 조현양, 앞의 글, pp. 157-158.

전문도서관이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본다. 어떤 한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유사한 성격의 전문도서관이 각 주제분야별로 약간의 노력을 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자료보급사업'계획에 따라 외부인이지만 회원에게는 복사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술회의자료, 연구보고서, 세미나 자료, 연구원 학술발표자료 등 공개가능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복사가 가능하다. KRISTAL과 천리안을 통하여 서지정보의 입수가 가능하여 여러 형식으로 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41]

또한 한국기계연구원 정보유통망사업단은 창원·마산지역 지역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 기계·소재분야의 핵심 기술정보자원의 수집과 협력회사간 네트워크 지원 등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마산지역 기계·소재분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고 지역통합VAN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하는 업무 등이 사업목표라고 제시하고 있다.[42]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19종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여기에는 약 70만건의 데이타를 수록하고 있다.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이용자도 이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INIS-SDI서비스를 대학이나 관련기관 연구자에게도 제공한다.

V. 결 론

전문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환경아래에서는 가장 원론적인 정보봉사를 펼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생각된다. "전문도서관은 다른 종류의 도서

41) 조현양, 앞의 글, pp. 161-162.

42) 전창배, "창원·마산 지역정보유통망 구축", 문헌정보인의 맥(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9집 (1996), pp. 7-27.

관보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정보처리기술을 접하기 쉬운 환경과 외국의 선진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많은 연구원들이 이용자인 점 그리고 정보 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된 점 등 비교적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43]고 전문도서관 관리자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도서관도 자료수집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다. 정보수집량의 부족현상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229개관이 수집하는 학술잡지의 종수와 외국의 한 정보관리기관의 그것보다 적은 양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간 자료공동이용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도서관마다 동일한 자료의 중복수집이 많아 자료량의 부족현상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도서관마다 우선 학술자료로 대표되는 일차자료를 여러경로를 통하여 충분하게 수집하고 그런 후에 도서관간의 자료공유체제를 구축하여 개별 도서관의 자료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다. 자료공유를 위하여 전제가 되는 종합목록의 편성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것을 사용하면서 갱신과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에서 주로 제기되는 회색자료의 효과적인 수집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학술세미나 및 회의자료, 부정기간행물, 외국 정부와 기관의 보고서 등이 주로 수집대상이 되는 자료이다. 각 연구소의 해외 주재원이나 해외 공관을 통하여 약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 방법을 통한 외국자료의 입수에는 한계가 많다. 산업기술정보원이 해외 공관으로부터 수집하여 배포하는 「해외산업기술정보」의 충실성 증대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어떤 도서관도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수집비의 증액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제한된 예산으로 가장 유용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도서관의 자료수집비가 전체 연구비의 1%에 그치고 있다는

43) 조현양, 앞의 글, p. 154.

사실은 정보관리활동에 큰 문제로 되고 있다.

둘째는 사람문제이다. 전문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의 부족과 주제전문가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도서관기준에 따르면 연구단지 각 전문도서관 정보관리부서의 적정인원은 23명이나 현재는 평균 11명 정도 확보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에서의 정보봉사에는 주제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에게 연구시간의 일부를 정보처리나 정보분석업무에 배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이다. 물론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통신망의 운영에는 컴퓨터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로 정보봉사와 관련된 요소이다. 자료와 사람문제와 관련된 요소이기도 하다. 수준 높은 봉사는 충실한 자료와 유능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문도서관 관리자가 지적하는 정보봉사의 방향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센터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여졌을 때'에 데이타가 정보로 바뀌는 정보의 속성을 볼 때 그러한 '무엇인가'에 대한 소요를 충분히 예상하여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44]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4) 김재수, 앞의 글, p. 147.

Present Status Information Services in Special Libraries

Yong-Gun Kim*

〈Abstract〉

Special Libraries are not the organizations established and administered by the Library and Reading Promotion Law, but the ones organized to provide necess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required in the works performed by the staff of organizations. The goal of special libraries is to provide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required by the parent organizations, preferably, at the right time and in the right form.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ization of social structure, the number of special library has been increasing. Especially, industries need industrial information in their introduction of new management techniques and in the processes of technical development, so special libraries attached to industries have remarkably been increased.

Special libraries, along with academic libraries, are the oranizations providing necessary matials for the specialists who are producing knowledge of every field in the society. However, apart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from academic libraries, the organizations, manpower, works, collections and services of special libraries have not been properly investigated and known. This research has tried to identify if those factors are provided for proper services. The result shows which factors are fulfilled enough or which ones need enforcement.